AUTHOR 신복윤 (Bock Eyun Shin)

TITLE 칼빈 신학에서 구속주 하나님에 관한 지식(1)
(Calvin's Doctrine of the Knowledge to God the Redeemer (1))

IN 신학정론(Journal of Reformed Theology)
vol.24 no.2 (November, 2006):375-387

묘사한 그대로의 순수한 옷이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관계된 문제를 시류에 따라 변하는 하루살이 주장들에 근거하여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은 옷깃을 여미면서 신앙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바른 신앙 전통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확신으로 다른 이론들을 평가해야 한다.

칼빈 신학에서 구속주 하나님에 관한 지식(1)

[신 복 윤 | 조직신학 · 명예총장]

여러해 전에 "칼빈 신학에 있어서의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3회에 걸쳐서(8권 1, 2호와 9권 1호) 본 신학정론지에 연재한 바 있다. 이번에는 "구속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역시 세 번에 걸쳐서 연재할 계획이다.

Ⅰ. 하나님과 관련해서 알 수 있는 인간과 죄에 관한 지식

칼빈 신학에서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기능을 갖지 못한다. 우리는 그것이 신자에게 관련성이 있으며, 신자에게만 의미를 가지는 수단, 즉 특별계시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자금 구속주 하나님에 관한 지식, 즉 칼빈의 구속론을 다루게 된다. 칼빈은 『기독교강요』 제2권에서 구속의 필요성(1~5장), 구속이 약속된 계시의 계속적 형식(6~11장), 그리고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구속사역(12~17장) 등을 설명한다.

하나님은 두 겹의 계시로 자신을 인간에게 알리셨다. 그는 외적(외부) 세계와 성경을 통해서 창조주로 알리셨다. 그리고 그는 성경을 통해서만 자신을 구속주

로 알리셨다. 인간은 그 창조된 세계의 일부이며, 이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을 알리셨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를 칼빈은 지옥이라고 말한다.[1] 그러므로 자연의 빛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계시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참되고 구원하는 지식을 얻는다.

A. 죄의 상태에 있는 인간

인간 존재의 본질은, 이 세상에서 순례하는 동안, 그리고 육체적 죽음 후 마지막 심판날까지도 그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도록 허락받았다는 사실에 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육체와 영혼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역시 인간과 창조세계에 찬란하고 눈부신 은사를 아낌없이 주셨다.[2]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 혼자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가운데 살게 하심으로, 말하자면 인간은 하나님의 완전한 빛을 비추는 그 위대한 광채의 거울이 되게 하셨다.[3] 인간은 그러한 올바른 영적 자세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혼의 모든 부분, 심지어는 육체 자체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에게 반사되었으며, 그는 지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아갈 수 있었다.[4]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5] 이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에게 교화된 이해력이 주어졌다는 것과 그의 의지가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되었다는 점에서 보이게 된다. "그는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과 성결 및 의에 대한 열망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6] 이처럼 인간이 하나님과 유사(형상)하다는 것은 인간이 정신물리학적

1) *Comm on Luke* 12:47, 칼빈의 지옥은 불과 유황이란 말로 비유적으로 표현된다.
2) *Inst.*, II. 15. 8.
3) Cf. I. 15. 3.
4) *Inst.*, I. 15. 3, 8.
5) *Inst.*, I. 15. 3.
6) *Inst.*, II. 2. 12.

구조 이상이라는 것을 뜻하며[7] 따라서 그것은 창조주와 다른 모든 피조물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의미한다.

인간이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은 그의 전 정신 물리적 존재가 그 형상에 따라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칼빈은 이와 관련하여 전통적 신학적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인간은 자신의 존재의 시초가 전적으로 창조주의 선하심에 기인한다는 것을 명백히 드러내고자 했다. 그들의 육체와 영혼은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은혜에 의해서만 살아간다. 인간은 그것들을 자신의 권리로는 소유할 수 없다. 이것들은 최초의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신적 유사성을 더 힘 있게 보여준다. 다른 모든 피조물보다 월등하게 하는 이 특별한 탁월성 때문에, 창조시의 인간은 자신의 영원한 소유로서 신적인 어떤 것을 부여받았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안 된다.[8] 이것은 그의 육체와 영혼에 신적 본질의 섬광이 가해졌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신적 유사성은 오히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의한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도록 창조되었다. 인간은 선을 택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받았다.[9] 그가 창조주와의 관계를 내던졌을 때 결과적으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파괴된 것이다.

성경은 이에 대한 이유를 타락 이야기에서 설명하고, 아담의 죄가 인류 전체와 각각의 사람에게 미친 결과에 대하여는 인간이 측정할 수 없다고 말한다. 성경은 우리의 이성이 손상을 입고 우리의 마음이 너무 악해져서 죄 짓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증거한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창조의 직접적 목적이라는 그 특권을 상실하였다. 즉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소멸되었다. "하나님의 형상이 전적으로 소멸되거나 파괴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아주 부패했기 때문에, 남은 것은 다만 무섭도록 추한 것뿐이다."[10] 인간은 완전한 상태에서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자유의지로 영생에 도달할 수 있는

7) *Ibid.*
8) *Inst.*, I. 15. 3.
9) *Inst.*, I. 15. 8.
10) *Inst.*, I. 15. 4.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 그러므로 아담은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넘어지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그는 다만 자신의 의지로 타락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의 의지는 어느 쪽으로도 기울어질 수 있었으며, 따라서 항구적인 인내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아주 쉽게 타락하였다. 그러나 그가 선악을 선택하는 일은 자유로웠다.[11]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시고 아담의 타락을 허용하신 것이다.

죄의 근원은 아담의 죄의 동기에 있다. 어거스틴은 그것을 자기 사랑으로 보았지만 칼빈은 그것을 불순종으로 보았다.[12] 인간의 변절은 순수하게 부정적인 것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그는 자신의 철저한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지 않았다. 이 부정적인 표현에 반드시 주목해야 하며, 이 사실로 우리는 죄를 인간 존재의 본래적인 요소가 아니라고 주장해야 한다. 그것은 또한 단순히 도덕적 결함으로 구성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창조주와의 올바른 관계의 포기를 의미할 뿐이다.

인간 자세의 이러한 변화의 결과는 전 존재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자신의 본래의 태생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창조되었지만 지금은 생명의 근원에서 이탈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내면의 깊은 곳까지 영향을 받게 되었다. 최초의 죄로 말미암아 입은 손상은 인간 존재의 일부만이 아니라 완전히 육체와 영혼 전체에 미친다. "인간 전체가 마치 홍수를 만난듯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압도되어 죄를 면한 부분은 하나도 없으며, 사람에게서 출발하는 것은 모두 죄로 돌려야 한다."[13] 칼빈은 계속해서 "사람에게 있는 것은 이해에서 의지에 이르기까지, 또 영혼에서 육체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육욕으로 더럽혀지고 또 육욕으로 가득 차 있다"[14]라고 설명한다. 칼빈은 성경적 표현을 사용하여 인간은 전적으로 "육"이라고 단정한다.[15] 인간은 온갖 종류의 부패와 타락의 심연이며, 참으로 우리 영혼은 불법의 시궁창이다. "이는 우리의 본성은 선이

11) *Inst.*, I. 15. 8.
12) *Inst.*, II. 1. 4.
13) *Inst.*, II. 1. 9.
14) *Inst.*, II. 1. 8.
15) *Inst.*, II. 3. 1.

결핍된 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결코 가만히 있도록 놔두지 않는 각종 악을 생산할 능력이 풍부하기 때문이다."[16] 그리하여 완전함이 없는 불신앙적이며 불순종적인 인간은 전적으로 "육욕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17]

이성과 의지는 다 같이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 특별히 의지는 악 이외에는 어떠한 것을 위해서도 노력하지 않는다. 그러나 타락 후에도 이성과 의지는 어느 정도까지는 적어도 사람을 동물과 구별하기에 충분하였다. 루터가 타락한 인간과 관련하여, 이성에 종속하는 낮은 것들과 영적인 것들을 서로 구별한 것처럼,[18] 칼빈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않는 외적인 것들과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에 속하는 참된 의를 서로 구별하였다.[19] 칼빈은 "사람의 자연적인 천품은 죄로 인하여 사람 안에서 부패하였으나, 초자연적인 천품은 사람에게서 제거되었다"고 주장한 어거스틴의 그 유명한 글에 찬성하였다.[20] 이 영적 은사들을 상실한 인간은 자신의 행위로 천적인 것들을 내좇았으며 이제는 더 이상 그것들을 상상할 수조차 없게 되었다. 믿음,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 그리고 거룩함에 대한 열망은 완전히 인간과는 관계가 없게 되었다. 한편 자연적 은사는 그에게서 전적으로 제거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효능의 상실은 있었다. 이것은 특별히 의지의 경우에 더 명백하다. 타락 후 인간은 "의지는 박탈당하지 않았으나 건전한 의지는 박탈당하였다."[21] 완전한 상태에서 아담의 의지는 자유로웠을 뿐 아니라, 역시 선 혹은 악을 향해서도 자유로웠다. 그러나 타락 이래,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이 없이는 어떠한 선도 행할 자유의지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 확실하다."[22] 그때부터 인간은 죄의 노예가 되어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의에서 전적으로 소외되었으며, 그리하여 사악하지 않고, 왜곡되지 않고, 부정하거나 더럽혀지지 않은 것은 어떠한

16) *Inst.*, II. 1. 8.
17) *Ibid.*
18) *The Sermon on Exodus*, 18; *Com. on John* 1:8.
19) *Inst.*, II. 2. 5; *Sermon on Job* 1:5.
20) *Inst.*, II. 2. 12; *Com. on John* 1:5.
21) *Inst.*, II. 3. 5.
22) *Inst.*, II. 2. 6.

것도 알지 못하며 욕망하지 못하며 또한 책임도 갖지 못하게 되었다.

B. 죄의 전가(轉嫁, transmission)

성경과 경험은 다 같이 죄는 보편적이라고 가르친다. 성경적 표현에 따르면 이 보편성은 아담의 타락에서 왔다. 칼빈은 주장하기를, 아담은 온 인류의 조상이며 뿌리이기 때문에, 그의 모든 후손은 부패한 본성을 갖고 태어나며, 아담의 죄와 그들 자신의 타고난 부패는 그들에게 죄로 전가된다고 한다.

아담의 죄가 우리 자신의 죄, 즉 온 인류의 죄가 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태어나는 모든 어린 아기들이 정신적 의식 활동도 하기 전에 그들에게 이 죄가 있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이에 대한 일반적인 답은, 츠빙글리(Zwingli)가 주장한 대로, 우리는 최초의 조상으로부터 죄를 상속받는다는 것이다. 칼빈은 결코 그러한 견해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우리는 생각한다.[23] 그에 따르면 원죄의 전가는 오직 하나님의 심판, 즉 온 인류에게 가해진 심판이다. "아담의 인격 안에서 온 인류의 타락은 생식 과정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된다. 하나님은 한 사람 안에서 우리 모두를 아름답게 꾸민 것처럼, 역시 그 안에서 그의 은사를 우리에게서 박탈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인 악과 부패를 부모로부터 받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 아담 안에서만 부패한 것으로 여긴다. 왜냐하면 아담이 타락한 직후 하나님은 인간의 본성에서 그가 주셨던 것을 박탈하셨기 때문이다."[24] 이처럼 칼빈은 자연주의적 해석의 시도를 모두 거부한다. 원죄는 생물학적 유전과 같은 어떤 자연적 과정을 통하여 전가되지 않는다. 그것은 유전되는 질병이 아니다. 아담은 사실상 그의 인격 안에서 온 인류를 대표하기 때문에, 온

23) 칼빈은 가끔 츠빙글리파의 교리를 연상시키는 용어로 표현하였다. 예를 들면 그것은 *Inst.*, 1. 15. 8.에서 볼 수 있다. 아담은 처음 창조되었을 때, 자신의 모든 후손들과는 매우 달랐다. 그들은 부패하고 타락한 조상에 그 기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로부터 유전적으로 전염된 것이다.

24) *Com. on John* 3:6.

인류는 아담과 동시에 정죄되었다. 아담은 한 개인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체화였다:

> 주께서 인간성에 부여하시고자 하신 천품들을 아담에게 위탁하셨다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해야 한다. 따라서 아담이 그 받은 천품들을 잃었을 때에, 자신이 잃었을 뿐 아니라 우리 모두 잃게 된 것이다. 아담이 잃어버린 천품은 자신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도 받은 것이며, 그 천품은 한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위해서 주셨다는 말을 들을 때 누가 영혼의 전이에 대해서 걱정할 것인가?[25]

칼빈은 이와 같은 해석을 내리면서, 타락한 인간은 그가 범하지 않은 죄에 대하여 형벌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반대하는 데 대하여 강력히 거절한다. "우리가 아담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죄 없고 책임 없는 우리가 아담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뜻이 아니라, 그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가 그 저주에 함께 말려들었기 때문에 그가 우리에게 죄책이 있게 만들었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벌이 우리에게 왔으며, 또한 그가 전염시킨 것이 우리 안에 있어서 이것은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26] 결과적으로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으며, 심지어는 어린 아기들까지도 다 죄인이다. 이 점에서 칼빈은 어거스틴의 주장을 활용하였다. "젖 먹는 어린 아기들까지도 모태에서부터 저주를 받았지만, 그 책임은 다른 사람의 허물이 아니라 자신의 허물 안에 있다. 아직은 그들에게서 불의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씨는 그들 속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참으로 그들의 본성 전체는 죄의 씨앗이며, 따라서 그것은 하나님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죄로 인정된다는 결론이 된다. 허물이 없으면 고발도 없을 것이다."[27]

그러나 칼빈은 이 죄에 대한 인간의 전적인 책임을 확언하지 않을 수 없었다.

25) *Inst.*, II. 1. 7.

26) *Inst.*, II. 1. 8.

27) *Ibid.*

그는 이 죄가 우리 자신의 죄임을 경험이 말한다고 설명한다. 우리가 죄를 질 때, 강요에 의해서 짓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왜곡되고 악한 우리의 의지로 범하는 것이다. 우리는 외부의 강요가 아닌 내적인 필연성에 굴복하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숙명론적인 요소들을 죄의 교리에서 제거해야 한다. 칼빈은 필연성과 강제성을 구별한다.

> 그러므로 이 구별의 중심점은, 사람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부패했을 때, 그것은 자신의 의지로 죄를 지은 것이지 마지못해서 또는 강제로 지은 것이 아니다. 그의 심정의 가장 간절한 욕구에 의한 것이지 힘에 의한 강제로 인한 것이 아니며, 그 자신의 정욕의 선동으로 한 것이지 외부로부터 강요를 받아 한 일이 아니다. 지금 인간의 본성은 극도로 부패해서 움직이면 반드시 악한 일밖에 할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결국 사람은 죄를 짓는 필연성에 예속되어 있다고 분명히 말하는 것이다.[28]

우리의 상태는 하나님과 소원한 관계에 있다. 우리는 악을 결정하고 그것을 자진하여 따른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그와 같은 필연적 결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는 자신이 택한 길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것이 죄를 필연적으로 짓는다는 의미인데, 우리는 이 죄에 자의적으로 우리 자신을 예속시킨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강요에 의해서도, 외부로부터 방해를 받아서 되는 것도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를 외부적인 강제성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추악해진 의지를 고쳐주시고 그 의지로 하여금 의를 향해서 달리게 함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다. 이 중생의 역사는 물론 피택자에게만 해당한다. 그러나 그들도 역시 유기자들과 마찬가지로 회심할 때까지는 전적으로 죄에 복종한다. 회심은 의지의 방향 전환이다. 그러한 의지는 폐지되지 않는다. "나는 또한 의지가 새로 창조된다고 말한다. 이것은 의지가 지금부터 있기 시작한다는 뜻이 아니라, 악한 의지가 선한 의지로 변한다는 뜻이다."[29]

28) *Inst.*, II. 3. 5.
29) *Inst.*, II. 3. 6.

궁극적으로 인간의 이러한 죄의 상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해될 수 있다. 칼빈은 바울을 가리켜 원죄의 보편성과 실제성을 가장 잘 드러낸 참된 증인이라고 지적한다. 바울은 아담이 인간 본성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함으로 명백히 하였다.

> 그러나 그리스도의 의와 그에 따른 그의 생명이 전달 또는 분여에 의해서 우리 것이 된다는 것이 논의할 여지가 없는 일이라면, 즉시 의와 생명은 아담에게서 상실했다가 그리스도에게서 회복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또 죄와 죽음은 아담을 통해서 잠입했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없어진다는 결론이 나온다.[30]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그 은사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결핍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의 유일한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본래의 불의와 선에 대한 무능력이 더 확실해진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아담 안에 합병되어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 속에 들어가며, 그리하여 원죄의 사실 속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죄에 대한 바른 인식은 그리스도의 공로의 영광을 뜻한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에 의해 의롭게 되기 전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고발되어야 할 존재들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밖에서는 의와 구원과 어떠한 선도 찾아볼 수 없다."[31] 그리스도의 빛에 의해서만, 우리는 극도의 부패와 사악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선다는 것을 알게 된다. 우리는 타락하였으며, 어디에서도 도움의 방법을 찾을 길이 없다. 크든지 작든지, 아버지이든지 어린 아기들이든지 우리는 모두 예외 없이 우리에게 가해진 저주를 하나님께서 제거해주시지 않는 한 파멸의 상태에 있다. 그리스도를 떠나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우리를 때릴 것이다.

C. 인간 생활에서 죄

인간이 취하고 있는 기본 자세는 인간의 사고, 의지, 행동 전체를 결정한다.

30) *Inst.*, II. 1. 6.
31) *Com. on Ephesians* 2:3.

> 이 부패는 우리 안에서 없어지지 않고 계속 새로운 열매, 즉 앞에서 이미 언급한 육의 열매를 맺는데, 이는 마치 뜨거운 용광로에서 불꽃과 불똥이 튀며 샘에서 끊임없이 물이 솟는 것과 같다.[32]

> 인간 본성 전체는 한마디로 정죄를 받았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이해와 이성은 그것들이 육욕적이기 때문에 부패하였으며, 마음의 애정 역시 육욕적이기 때문에 부패하고 사악해졌다고 하셨다.[33]

우리는 소경이며 오류에 빠져서 바른 결정이라고는 하나도 내릴 수 없다. 우리의 의지는 구부러져서 악하고 부도덕한 것을 생각한다.

타락한 인간의 이러한 근본적인 사악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악하지 않은 행동이 있다는 것을 칼빈은 인정한다. 심지어는 그들 중에 예찬을 받을 만한 일들을 수행하는 자가 있기도 하다. 이것은 인간 자체가 선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뜻이다. 사실 그는 그들 모두에게 동일한 정도의 부패를 돌리지 아니하였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의 가치를 구별하신 것이었다.[34] 그러나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채로 남아있다.

>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유익을 위해서 지배자가 될 운명인 사람들에게 영웅적 기상을 주시는 때가 많다. 역사상 유명하고 위대한 지도자들의 성품도 여기에서 왔다. 일반 서민들도 같은 식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아무리 우수하다고 해도 항상 자기 야심에 밀리면 이 오점이 모든 덕성을 오염시켜 하나님의 후의를 완전히 잃도록 하기 때문에, 세속 인간들의 미점으로 보이는 것은 모두 무가치하다고 생각해야 한다.[35]

32) *Inst.*, II. 1. 8.
33) *Com. on John* 3:6.
34) *Inst.*, II. 3. 4. 참으로 카밀루스(Camillus)의 빛나는 천품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 자체로는 칭찬할 만하다는 것을 나는 인정한다. 그러나 이런 천품이 어떻게 그의 본성이 선하다고 증명하겠는가?
35) *Inst.*, II. 3. 4.

위대한 인간들의 역사에서 우리가 예찬하는 그 위대한 덕행들의 초자연적 가치는 모두가 무가치하다. "허망한 외관으로 사람을 속이는 미덕들이 정치적 집회에서는 칭찬을 받고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하겠지만, 하늘 심판대 앞에서는 전연 의를 얻을 가치가 없을 것이다."[36] 칼빈은 말하기를 "만일 자연인이 이런 탁월한 도덕적 완전성을 가졌다면, 확실히 인간성에는 덕을 함양할 능력이 없지 않다고 추론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하였다.[37] 이 점에서 그것은 인간의 외적 성취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내면 생활의 실재에 있는 것이다. 인간의 의지는 그릇되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특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열의가 없다."[38] 이 결함은 그들이 하려고 했던 모든 것을 손상시킨다. 이것은 그들의 본질적인 결점이다. 인간의 모든 선행을 고무하며 동시에 파괴하는 야심과 이기주의는 인간의 근본적 결함의 표면일 뿐이다. 그러므로 모두 다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결국 동일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죄는 도덕적 실패 이상의 것이다.

영적인 것들의 영토는 타락한 인간들이 들어갈 수 없는 낙원이지만, 그는 지상의 일에서는 배제되지 않는다. "오성의 노력은 아무런 결과도 없을 만큼 항상 무가치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39] 칼빈은 가장 침울한 어조로 타락한 인간의 영적 비참함을 설명하고 나서 이제는 더욱 인간의 지상적인 관심을 다루는 인간의 비관적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다. 이 지상의 일을 그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 "땅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또는 하나님 나라, 진정한 공의 또는 내세의 축복에 속하지 아니한 일을 의미한다. 그것은 현세에 관한 의미와 관련이 있으며, 어떤 의미에서는 현세의 범위 내에 국한되었다…… 처음 것에는 정치와 경제와 모든 기계공작 기술과 문예가 포함된다.[40]

36) *Ibid.*
37) *Ibid.*
38) *Ibid.*
39) *Inst.*, II. 2. 13.
40) *Ibid.*

그리고 인간은 사회에서 살며, 법의 정치를 받아들이려는 자연적 경향이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칼빈은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 그러나 사회질서의 씨앗이 모든 사람 속에 심겨져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그리고 이 사실은 현세 생활을 정리하는 데 이성의 빛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한다.[41]

칼빈은 학술과 공예에 대하여 언급한 후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린다. "그러므로 이 증거는 사람 속에 선천적으로 심겨져 있는 이성과 오성에 보편적 이해력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한다."[42] 그러나 그것은 인간에게서 이 모든 빛을 박탈하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또 다른 증거이다. 더욱이 이것은 철학자들의 경우에 잘 나타난다.

> 세속 저술가들이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쓴 것을 보면, 거기에는 진리의 훌륭한 광명이 비치고 있다. 이 광명을 볼 때마다 우리는 인간의 지성이 비록 그 완전상태에서 타락하고 부패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훌륭한 능력을 아름다운 옷을 입은 것처럼 입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의 영을 진리의 유일한 원천이라고 인정한다면, 진리가 그 어디에서 나타나든 우리는 그것을 결코 거부하거나 멸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을 모욕하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영의 선물을 경시하는 것이 곧 영 자신을 경멸하고 비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고대 입법가들이 사회질서와 규율을 아주 공정하게 수립한 데 대하여 우리는 그들 위에 진리가 비췄다는 것을 부정할 것인가? 자연을 훌륭하게 관찰하고 정교하게 묘사한 철학자들을 눈이 어두운 사람들이었다고 할 것인가? 변론술을 생각하고 조리 있는 화법을 가르친 사람들을 이해력이 없는 사람들이었다고 할 것인가? 의학을 발전시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전력한 사람들을 우리는 미친 사람들이라고 할 것인가? 수학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할 것인가? 미친 사람들의 허튼소리라고 할 것인가? 그럴 수는 없다. 깊은 존경심이 없다면 우리는 이런 문제들에 관한 고대인들의 저술을 읽을 수 없는데, 그들의 탁월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경탄해 한다.[43]

41) *Ibid.*
42) *Inst.*, II. 2. 14.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정신의 그러한 생산에 대한 예찬을 인간에게 돌릴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한다.[44] 칼빈은 역사에 나타난 위대한 행동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그 성취를 그 기구에 불과한 인간과 분리해서 생각했다. 칼빈은 고대인들의 지성과 지혜를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그들의 저술에 대한 영속적인 예찬과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은 인간타락의 교리를 조화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인간은 탁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지를 행하려는 욕망에서 하나님을 향하며 마음을 넓히지 못하고 제대로 능력을 나타내지도 못한다.

칼빈은 이에 관한 진리를 그리스도에 대하여 언급함으로써 설명하였다.[45] 그리스도의 생활에 비추어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진다. 우리 각자는 자기 자신만을 찾는다. 여기서 우리의 모든 사상, 언어, 행동은 그것들이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시련을 견뎌낼 수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죄의 폭군에서 해방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그리스도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하에 있게 되며, 육체와 영혼의 죽음, 즉 죄에 대한 형벌을 받게 된다. 우리의 상태는 너무 악하기 때문에 단순한 치료로는 우리의 오성에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다. 그 예리함이 아무리 칭찬을 받을 만하더라도, 그것은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46] 우리의 전 존재를 껴안아야 할 갱신은 단지 이미 소유하고 있는 기능들의 개선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문제는 새 창조이다. 이런 이유로 먼저 인간 상황에 관한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47]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새로운 창조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 새로운 창조는 우리에게 공통된 본성에 속한 것을 모조리 쓸어버린다는 것을 의미한다."[48]

43) *Inst.*, II. 2. 15.
44) *Ibid.*
45) *Inst.*, II. 3. 4.
46) *Inst.*, II. 1. 9.
47) *Inst.*, II. 3. 1.
48) *Inst.*, II. 3. 6.